

현대로템, 방산·철도 이어 EP 키운다… 5년간 투자 3배 확대

(에코플랜트)

자동차·제철서 스마트물류로 확장
광양·부산항 AGV 수주 성과 지속
수소·철도 E&M까지 참여 확대
미래기술 사업화 전략 EP 구체화

방산과 철도가 성장을 이끄는 현대로템이 에코플랜트(EP) 사업에 대한 투자를 향후 5년간 3배 이상 확대한다. 이용배 사장이 연초 강조한 '미래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전략이 EP 부문에서도 투자 및 사업 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1일 당진사업장에서 열린 협력사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춰 협력사의 사업 참여 영역도 기존 자동차·제철 설비 중심에서 항만 무인 이송장비(AGV), 수소설비, 철도 E&M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EP는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약 9%, 올해 1분기 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분기 매출은 1023억원(영업이익 39억원)으로 전년 동



현대로템 본사 및 연구소 전경. /현대로템

기 대비 20.7%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설비와 제철설비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온 EP는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에서는 항만 AGV와 관제·충전 인프라,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추출기·충전소·출하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는 EP의 사업 확대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 분야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에 부산 신항 7부두용 AGV 43대를 공급했다.

2024년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약 828억원 규모 자동화 부두 사업을 수주해 오는 2029년까지 AGV 44대와 관련 인프라를 공급한다. 해당 AGV는 최대 65톤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며 30분 충전 시 최대 8시간 구동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DGT으로부터 부산 신항 7부두용 AGV 57대 추가 공급 발주의향서(LOI)도 수령했다.

이러한 연속적인 수주 실적은 선행된 기반 구축에서 비롯됐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 스마트물류사업실을 신설하고 당진 EP공장에 AGV 전용 생산라인과 주행시험장을 구축했다. 향후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AGV R&D와 주요 부품 국산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설비 역시 바이오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매출을 내고 있다. 아직 국내 수소경제가 완전

히 활성화되지 않아 EP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업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있다.

이 같은 EP 부문의 변화는 수소·무인화·AI 등 미래기술을 신속히 사업화하겠다는 이용배 사장의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대로템은 연초 EP의 주요 과제로 항만 AGV 등 AI 스마트물류 상용화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7월 로봇·수소 관련 조작을 통합한 RH사업부를 신설했고, 지난 6월에는 전사업부문의 R&D와 미래사업, 시설투자 등에 2028년까지 1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수소 관련 설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항만 AGV는 RH 조직개편 이후에도 기존대로 EP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소추출 등 일부 수소설비 사업도 EP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2 슬림’ 허리 맞춤기능 등 강화

코웨이가 작은 크기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기능 체어 ‘코웨이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2 슬림’을 출시했다. 6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몰입·휴식·회복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비렉스 트리플체어’의 감각적인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더 슬림해진 실루엣과 허리 맞춤 기능을 추가해 바른 자세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리플체어2 슬림’은 트리플체어 무빙형 대비 부피를 9% 줄여 공간을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든 바퀴 구조를 적용해 외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따라 의자 높이를 최대 5cm까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인력난·청년 취업난 해소… 강소기업 1만3387곳 선정

중기중앙회, 평균임금 3500만원 상향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으로 조정
업력 기준 7년서 5년으로 완화
지역·업종·복지별 기업 검색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 관참은 강소기업’ 플랫폼이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과 청년 등 구직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만3387개를 일자리 매칭 플랫폼 ‘참 관참은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참 관참은 강소기업’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보유한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무·비재무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플랫폼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참 관참은 중소기업’과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사업 통합에 따라 개편했다

특히 올해는 구직 매력도와 고용 안정



‘참 관참은 강소기업’ 화면 갈무리.

성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평균임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상으로, 종사자 수 기준을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각각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업력 기준은 ‘7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은 ▲재무 평가모형 점수 평균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산총계 1억원 이상의 재무요건 ▲평균임금 3500만원 이상 ▲최근 1년 신규 채용 1명 이상, 퇴사율 최근 3개월 평균 15% 이하 ▲종사자 10인(스

타트업 5인, 건설업 30인) 이상 ▲업력 5년 이상 ▲산업재해,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등 결격요건이 없는 곳을 두루 포함했다.

선정된 기업 정보는 ‘참 관참은 강소기업’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의 검색창 또는 ‘기업찾기’ 메뉴의 ‘일자리지도’, ‘조 건별 기업검색’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 관참은 강소기업’ 플랫폼은 민관 협업 전용채용관, 우수기업 큐레이션 등 기능을 고도화하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우

수 중소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에 있다는 점에서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지역·업종·규모·복지 등 조건별로 검색하고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지도’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에 있는 ‘참 관참은 강소기업’이 지도에 표시돼 한눈에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해당 회사의 위치, 주요 제품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 내용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지원 노력에 발맞춰 ‘참 관참은 강소기업’ 플랫폼도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소통을 돕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이스침대

롯데百貨 강남점 새단장

동선 정비해 쇼핑 편의성 높여

에이스침대가 롯데백화점 강남점 매장을 새단장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 리빙관에 자리한 매장의 전반적인 공간 구성에 변화를 줬다. 여러 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동선을 정비하는 한편, 각 제품의 디자인과 특색이 돋보이도록 공간을 구성해 한층 쾌적한 쇼핑 환경을 완성했다. 매장에선 에이스침대의 베스트셀러부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강남점.

LX하우시스

20주년 맞아 ‘지인페스타’

창호·주방 인테리어 제품 할인 혜택

LX하우시스가 ‘LX Z:IN’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5일까지 하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행사 ‘지인페스타’를 개최한다. 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 동안 창호·주방·바닥재·벽지·도어·단열재 등 LX Z:IN 제품이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할 경우 제품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을철 교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창호 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국내 대표 고단열 창호 ‘뷰프레임’은 물론 PL(플라스틱)시스템창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김승호 기자

엠앤씨솔루션, K-방산 기술 앞세워 유럽 공략 본격화

폴란드 MSPO 첫 참가 핵심기술 공개
현지 방산기업과 공동개발·생산 협의
폴란드 거점 유럽·북미·중동 진출 추진

모션&컨트롤(Motion&Control) 방산 전문기업인 엠앤씨솔루션이 K-방산 무기체계에 공급해 온 핵심 구동·제어 기술을 앞세워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다.

엠앤씨솔루션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처음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MSPO 2026 엠앤씨솔루션 부스이미지. /엠앤씨솔루션

MSPO는 폴란드 국방부와 군 관계자, 글로벌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다. 엠앤씨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유압·전

기식 구동제어 시스템과 포·포탑 구동장치, 서보밸브, 압내장형 유압 현수장치(ISU) 등을 선보인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에 구동·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엠앤씨솔루션은 K-방산의 현지화에 맞춰 폴란드 공급망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시 기간에는 폴란드 주요 방산기업 및 관계기관과 만나 공동개발과 부품 공급,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방안을 논

의한다.

기존 K-방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폴란드 자체 무기체계와 차세대 지상 플랫폼 분야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과 북미·중동 시장에서 현지화 및 직접 수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병근 엠앤씨솔루션 대표이사는 “MSPO 2026은 폴란드 및 유럽 방산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의 현지화 사업을 넘어 폴란드 기업들과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 유럽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